

신규 원전 백지화 文 ‘탈핵시대’ 선언

한빛원전 1·2호기 2025~2026년 폐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여수 호남 1·2호기 2021년 정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관련 기사 3·6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가동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또한 불허되면서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탈핵국가, 탈핵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영구 가동정지에 들어간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 가동 원전 25기 중 절반에 가까운 12기가 설계수명 만료로 폐로 절차(영구정지 후 발전소 폐쇄)를 밟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85년 12월 23일, 1986년 9월 12일 각각 운영허가를 받은 영광 한빛원

광주 무더위 쉼터 지원금 줄어 ▶7면



최진석의 노장적 생각
‘정해진 마음’ 버려야 선진국 ▶18면



헤더 vs 니퍼트 ‘광주 빅뱅’ ▶20면

전 1, 2호기의 경우 오는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게 확실시 된다. 나머지 3~6호기까지 4개 원전은 2034년부터 2042년까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돼 있다.

현재 경남권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따라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전 안정성 확보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문제라고 규정하며 원전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는 ▲내진설계 등 가동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위원회 승격 ▲원전 고장·사고 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반면 천연가스 발전설비를 늘리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 구상도 언급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중단하고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동에 들어간지 44년을 맞은 여수 호남 1·2호기 역시 오는 2021년 발전소 폐쇄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일몰제’ 도시공원 어떻게

<중> 서구 중앙공원
산책·등산 인기 시민들의 쉼터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꼭 지켜야
시민·기업 사유지 매입·기증 운동도

공원 면적의 30%가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광주 중앙공원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20년 공원이몰제가 시행될 경우 공원지구 해제가 불가피한 만큼 광주시가 공여지책으로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공원 지정과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의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공원지구 해제 움직임은 처음이라 광주 시민들은 더욱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중앙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 속 허파 역할과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공원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풍암동, 화정동, 남구 주월동에 걸쳐있는 공원으로, 면적이 총 293만9337㎡다. 광주 도심에서 가장 넓은 공원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뉴욕의 센트럴파크 규모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광주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등 근린 체육시설과 풍암호수, 금당산, 백일산 등을 끼고 있어 20만여 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쉼터로, 산책·등산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정한 것은 최근 추진중인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정책



광주의 ‘센트럴파크’ 광주 서구 금호동과 풍암동, 화정동, 남구 주월동에 걸쳐있는 중앙공원 전경. 광주 도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공원으로, 면적이 총 293만9337㎡에 달한다. 월드컵경기장 등 근린 체육시설, 풍암호수 등을 끼고 있어 광주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지와 수변공간을 확대하고 대기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광주 온도를 1도 낮추자는 정책인데, 중앙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광주의 허파인 중앙공원 숲 30%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진 대구보다 먼저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라는 수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더욱 중앙공원 숲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내놓은 정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공원이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난개발을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난개발을 피해 공원의 70%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공원은 73%가 사유지고, 27%가 국공유지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원 정비 등을 포함하면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여서 교육지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원 면적 가운데 30%인 90만㎡ 가량이 개발된다고 가정할 경우 5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5만 세대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 인근 풍암·금호지구의 도로 및 학교 등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중사모)’을 비롯해 광주지역 시

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가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번 5·9 대선에서도 중사모를 포함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간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 광역시도별 국가공원 1곳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강은미 중사모 대표는 “국가공원지정 방법 이외에도 광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서라도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과 기업이 모금이나 기증을 통해 벌이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중앙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기 과열 막고 실수요 살리기 ‘핀셋 규제’

정부 6·19 부동산 대책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4면> 우선 다음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6월 3일(토)~7월 1일(토) / 8회
7월 29일(토)~8월 14일(일) / 5회
비엠텡항공(VJ항공) : 3박5일/총 13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출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 항공 : 비엠텡 항공 (VJ 항공)
- ☑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 ☑ 특식 : 3회(오삼불고기/라비엡 레스토랑/노니보섬 정식)
- 🕒 쇼핑 : 4회

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
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출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 항공 : 비엠텡 항공 (VJ 항공)
- ☑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 특식 : 2회(오삼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 쇼핑 : 3회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관람일자 : ~ 17년 7월 16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원유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시장과 위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종/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편 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참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